

# 0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육군 공동주최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 세미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육군이 공동주최한 ‘2018년 조세재정연-육군 공동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 세미나’에서 ‘육군의 합리적 예산 수립을 위한 재무정보 개발: 상용차량(버스) 획득 및 유지 분야’ 및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 활용방안’ 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함

### 가. 개요

- 1) 일시: 2018.9.14(금) 14:00~16:30
- 2) 장소: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 1층 포트리스홀
- 3) 주최: 육군 기획관리참모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4) 발표: (주제1) 육군의 합리적 예산 수립을 위한 재무정보 개발: 상용차량(버스) 획득 및 유지 분야  
(주제2)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 활용방안

###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육군의 합리적 예산 수립을 위한 재무정보 개발: 상용차량(버스) 획득 및 유지 분야  
(이남주, 국가회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8년 9월 14일 밀리토피아 호텔 포트리스홀에서 개최된 2018년 조세재정연-육군 공동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 세미나에서 이남주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은 「육군의 합리적 예산 수립을 위한 재무정보 개발: 상용차량(버스) 획득 및 유지 분야」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남주 팀장은 “최근 육군 특정 사단의 중형버스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용차량 버스의 장비유지 및 획득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상용차량 버스의 주기성 교환품목 정비 누락 금액을 추정하고 주행거리별 편성 기준액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비 획득 예산 부족액을 산

정하여 문제점을 재인식하도록 하고 도태 결정을 목적으로 불용결정산식이 실무상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 주된 발표 내용 〉

- (장비유지) - 상용차량 버스의 주기성 교환품목 정비 누락 금액 추정
- (장비유지) - 주행거리별 편성 기준액 마련 방안 제시
- (획득) - 예산부족액 산정 및 불용결정산식 실무적용의 적정성 검토

주제발표에 이어 조성표 교수(한국회계학회회장, 경북대)가 사회를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이혁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임경국 중령(육군)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본 연구는 재무정보 활용에 관하여 육군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한 최초의 실무적인 연구로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상용차량에 비해 예산 사용액이 보다 크고 중요한 장비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 시 현금주의 재무정보 이외에 복식부기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상용차량 버스에 대한 분석은 연구의 시발점에 불과하며, 향후 육군의 모든 장비에 연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군 장비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형태] 국가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더라도 국방부의 수선유지비는 전비품의 노후화를 대체할 정도로 충분히 투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량유지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무회계 정보로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정비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지표(KPI)의 개발, 차량의 사용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류비 등을 대체적인 정보로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재무정보를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산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하나, 국방부의 전기수정유류 및 기타 비용은 타 중앙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결산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면 차년도 예산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타 부처에 예산 증액을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결산정보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혁수] 누적 주행거리별로 차량유지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누적 주행거리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연구 방향에 동의한다. 예산편성 기준이 단순화될수록 소요예산 판단은 용이해지나 현

실적인 소요와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연구에서 제시한 주행거리별 편성 기준액의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성과정보다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기왕, 기존 편성기준의 단순성을 벗어나 보다 실소요를 추정하는 체계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지역적/부대적 차량운용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형, 중형, 소형 차량의 각 차량 그룹 내에서도 차종 간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향후 상용차량의 유지비 편성 기준은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예산소요가 자동으로 판단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임경국] 주제와 연구방향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재무적 요소를 적용한 차별성은 무엇이며, 재무적 요소를 적용한 차별성이 있다면 그 차별성은 국가회계 도입에 따른 영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또한, 군 상용차량이 운용되는 시군구 지역을 고려한 '가혹조건'을 교체주기 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최근 21사단 중형버스 등의 사고와 연관짓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 □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 활용방안(정재희, 중령, 육군)

두 번째 주제로 정재희 중령(육군)은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재희 중령은 “사용자의 편의성이 갖추어져야 유용한 시스템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의 활용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사용자 권한의 부여, 시스템 고도화, 예산편성 판단자료 제공, 예산운영 현황의 실시간 조회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성표 교수(한국회계학회, 경북대)가 사회를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임경국 중령(육군)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초급 간부, 업무담당자보다 상위 최종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상의 자료를 카테고리화하여 정책결정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의 전반적인 활용도 조사를 위하여 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의 12개 분야 중 회계 이외의 다른 사용 분야에 대해서도 설문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조형태]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휘관의 관심과 사용자의 편의성이 중요하며, 사용자

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일부 상급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취합하여 피드백이 되도록 별도의 TFT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시스템상 문제 발생 시 이를 긴급히 복구할 수 있는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임경국]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각 개별 시스템을 국방재정정보분석시스템(DW)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전기오류수정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회계에서 사용되는 지표가 아닌 국가회계 실정에 맞는 지표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018년 조세재정연-육군 공동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 세미나(9.14.),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 1층 포트리스홀〉